람베르트 다네우스 (Lambert Danaeus, 1530-95)의 예정론

김지훈
(대신총회신학교, 교회사 교수)

[초록]

이 논문은 한국에서 아직 연구가 충분하게 되지 못한 개혁파 신학자 람베르트 다네우스(Lambert Danaeus)의 예정론을 살펴보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그 후에 그에게 영향을 끼친 칼빈과 베자와의 연결성을 살펴 보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그의 예정론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첫째, 그는 예정론과 구원론을 교회론에서 다루고 있다. 이것은 그가 예정론을 교회의 유익을 위한 교리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그의 예정론이 칼빈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다네우스의 예정론은 칼빈과 베자와 같이 이중 예정론과 전택론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그의 예정론은 칼빈과 베자의 예정론을 절충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의 구원의 서정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성화'와 '칭의'가 나온다. 이것은 칼빈의 이

논문투고일 2016.6.2. / 수정투고일 2016.7.2. / 게재확정일 2016.7.4.

해와 유사하다. 그러나 칼빈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나타나지 않으며, 베자와 같이 그리스도는 예정의 실행의 영역에 한정된다.

넷째, 아리스토텔레스-토마스적인 이해가 칼빈과 베자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의 예정론은 칼빈과 베자의 이해보다 더 세밀하고 논리적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사변적인 특징도 나타난다. 그가 가르친 유기의 순서와 같은 내용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는 칼빈적 스콜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다섯째, 그러나 예정론에서 다네우스의 목회적인 관점도 드러난다. 그의 작품은 예정론 논쟁을 해야 했던 베자의 작품보다는 더욱 목회적이다. 교회론적인 예정론과 구원론,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조는 지금의 교회에게도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예정론은 제네바의 개혁 신학자들과 17세기 대륙의 칼빈 신학자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전형적인 칼빈파 개혁 신학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키워드: 람베르투스 다네우스, 존 칼빈, 테오도레 베자, 16세기 개혁신학자, 예정론, 개혁파 스콜라주의, 타락전 선택론

Ⅰ. 서론: 연구사와 일생

람베르투스 다네우스(Lambertus Danaeus)는 칼빈 이후의 개혁신학자들을 연구할 때, 크게 주목받지 못한 학자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를 연구한 논문이 많지 않다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최초의 박사 논문은 뽈 드 펠리세(Paul de Felice)의 *Lambert Daneau(de Beaugency-sur-Loire), pasteur et professeur en theologie,*

1530-1595(Paris, 1882)이다. 이후에 올리비어 파티오(Olivier Fatio)는 *Methode et theologie, Lambert Daneau et les debuts de la scholastique reformee* (Geeve, 1976)라는 작품을 통하여 다네우스의 신학방법론을 연구하였다.

최근 다네우스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크리스토프 슈트롬(Christoph Strohm)의 교수자격취득논문(Habilitation)인 *Ethik im frühen Calvinismus: Humanistische Einflüsse, philosophische, juristische und theologische Argumentationen sowie mentalitätsgeschichtliche Aspekte am Beispiel des Calvin-Schülers Lambertus Danaeus* (De Gruyter, 1996)이 있다. 이것은 다네우스를 통하여 초기 칼빈주의의 윤리학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다. 이후에 데이비드 싯츠마(David S. Sytsma)는 소논문 *Calvin, Daneau, and Physica Mosaica: Neglected Continuities at the Origins of an Early Modern Tradition,* Church History and Religious Culture 95/4 (2015): 457-476에서 칼빈과 다네우스의 연속성을 다룬다. 그는 이 논문에서 자연 철학과 관련하여 다네우스는 칼빈 신학의 연속성 속에 있지만, 기독교 자연 철학을 체계화시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정리한다.[1)]

국내에서는 다네우스에 대한 논문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2013년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에서 출판한『칼빈 이후의 개혁신학자들』에 김진하가 쓴「다네우스의 생애와 신학, 그리고 칼빈신학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을 중심으로」라는 소논문이 있다. 김진하는 논문에서 다네우스의 신학을 '칼빈과 베자를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 신학을 인문주의적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방법을 통해 전개한 것'으로 정리하였다.[2)]

---

1) D. S. Sytsma, "Calvin, Daneau, and Physica Mosaica: Neglected Contnuities at the Origins of an Early Modern Tradition", *Church History and Religious Culture* 95, no.4 (2015), 476.
2) 김진하, "다네우스의 생애와 신학, 그리고 칼빈신학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중심으로", 『칼빈 이후의 개혁신학자들』(부산: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2013), 32.

이상의 다네우스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 상에서 본 논문은 다네우스의 예정론을 살펴 보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의 작품 속에서 나타난 예정론을 살펴 보고, 예정론의 내용을 통하여 칼빈과 베자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다네우스의 작품 중에서도 그의 신학 전체를 살펴 볼 수 있는『기독교 입문서』(*Christianae isagogae ad locos communes*, Geneve, 1583–88)를 주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또한『기독교 입문서』외에도 다네우스의 신학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는 몇몇 작품들을 살펴 보고자 하는데,『신학 소논문들』(*Opuscula omnia Theologica, ab ipso autore recognita, & in tres Classes divisa*, Geneve, 1583)와『거룩한 신학의 개요』(*Compendium Sacrae Theologiae*, Montpellier, 1595)를 다룰 것이다.

다네우스의 예정론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의 일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다네우스의 어린 시절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1530년경 프랑스 보정시 슈흐 르와르(beaugency sur Loire)에서 비교적 낮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오를레앙에 있는 학교를 다닌 후에, 1547년 혹은 1548년에 파리로 가서 왕립 대학의 아드리안 튜내브(Adrian Turnebe) 밑에서 공부를 하였다. 거기에서 그는 인문주의자들의 지식과 연구방법을 배우는데, 문법, 논리학, 수사학, 물리학, 지리학, 역사학 등을 배웠으며, 이것은 그가 후에 신학자로 활동할 때 도움이 되었다.[3] 그는 1553년부터 1557년까지 오를레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고, 시민법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는 거기에서 법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두 번이나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그는 부르쥐로 옮겨가서 1559년까지 지냈다. 거기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두 명의 교수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 프랑소아 호

3) O. Fatio, "Lambert Daneau 1530–1595", trans. Jill Rait, *The Literature of Witchcraft*, ed. B.P.Levack (New York & London: Garland Pub.,1992), 69.

트만(Francois Hotman)과 안 드 부르(Anne du Bourg)였다. 그가 제네바로 옮겨 가기 전에 겪었던 종교적 회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4] 그러나 다네우스가 1576년 출판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단에 대하여』(*De haeresibus ad Quod vult deum*)의 주석 헌정사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는 종교 개혁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하였으나, 1559년 12월 23일 파리에서 벌어진 스승 안 드 부르의 화형이 다네우스를 불타오르게 했고, 제네바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1560년에 제네바에 도착하였다.[5] 거기서 그는 법학에서 신학으로 전공을 바꾸었고, 칼빈의 강의를 열정적으로 들었다.

다네우스는 제네바에 머물기를 원하였지만, 1561년 프랑스 안에 있는 개혁 교회를 위한 사역에 초청을 받았다. 당시 제네바는 프랑스 안에 있는 개혁 교회를 위해서 해마다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여 파송하고 있었다. 파송받은 다네우스는 1572년까지 기엔(옛 명칭은 Grnabum)을 위하여 사역하였다. 이 목회 기간 동안 프랑스는 카톨릭과 개신교 간에 일어난 위그노 전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네우스 역시 피난과 수난의 시대를 살아야 했다. 이 프랑스에서의 사역은 1572년 바돌로매 대학살 사건으로 끝나고, 다네우스는 9월 29일 제네바로 돌아왔다. 10월 11일 제네바 목사회는 제네바 근교인 반두에브(Vandoeuvres) 교회를 그에게 위임하여 2년 동안 목회를 하였으며, 제네바 아카데미의 신학 교수 자리도 담당하게 되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네바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는데, 아마도 그의 난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7]

그는 제네바에서 사역하는 동안(1573-81년) 풍성한 작품들을 남겼는

4) Fatio, "Lambert Daneau 1530-1595", 70.
5) Fatio, "Lambert Daneau 1530-1595", 70; K.Maag, "Calvin und die Studenten", *Calvin Handbuch*, ed. H.J.Selderhuis (Tübingen: Mohr Siebeck, 2008), 164: "Er(Danaeus) erinnert sich an seine Ankunft in Genf im Jahr 1560 und hebt dann Johann Calvins entscheidenden Einfluss auf seine spätere Karriere hervor."
6) 김진하, "다네우스의 생애와 신학, 그리고 칼빈신학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중심으로", 10-11.
7) Fatio, "Lambert Daneau 1530-1595", 71.

데 27권에 달한다. Les Sorciers, Brieve remonstrance sur les jeux de sort(1574), 아우구스티누스의 작품들에 대한 주석들(1575,1578),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Sentences 의 주석서(1580), 방법론에 대한 작품들(1573), 디모데전서에 대한 주석(1577) 등이 있고, 이 외에도 편재론자들과 교황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서들이 있다.[8] 다네우스는 1560년 경 결혼했으나, 첫 부인과는 자녀가 없이 별세하였다. 43세가 된 1573년에 다네우스는 제네바에서 오를레앙의 군수업자 장 피그니(Jean Pigney)의 딸 클로드 페기(Claude Peguy)와 결혼하였고, 둘 사이에서 여섯 자녀를 두었다.[9]

다네우스는 연구 결과와 논쟁 활동을 통하여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했다. 1579년 5월 기롤라모 잔키우스와 다니엘 토사누스에 의해서 레이든 대학교의 신학과 학과장 후보로 천거되었다. 제네바시와 베자는 다네우스를 보내고 싶어하지 않았으나, 레이든은 간절히 다네우스를 요청하였다. 결국 다네우스는 1581년 2월 8일에 레이든으로 떠났다.[10] 그러나 그의 레이든에서의 활동은 짧았다. 다네우스와 레이든시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의견에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다네우스는 칼빈에게서 배운 대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장로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다. 1581년 7월 다네우스는 자신이 봉사하는 프랑스인 교회의 콘시스토리(Consistory)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는 국가교회의 형태로 운영되기를 바랬다. 레이든은 콘시스토리 제도를 비난하였다. 그러자 다네우스는 즉각 사임하였다(1582년 2월 28일).

레이든을 떠난 다네우스는 벨기에의 겐트(Gent)로 가서 오르테즈(Orthez)의 개혁주의 아카데미에서 1582년 5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교편을 잡았다. 이 학교는 1566년에 나바라의 여왕 잔(Jeanne d'Albret)이 세

8) Fatio, "Lambert Daneau 1530–1595", 72.
9) 김진하, "다네우스의 생애와 신학, 그리고 칼빈신학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중심으로", 12.
10) 김진하, "다네우스의 생애와 신학, 그리고 칼빈신학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중심으로", 14.

운 유명한 학교였다. 1583년 다네우스는 남프랑스의 레카(Orthez-Lescar)의 아카데미에서 신학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학교는 600명의 신학생이 공부하는 곳으로 다네우스는 학장직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목회직도 감당하였다. 다네우스는 1591년 프랑스 레카(Lescar)로 이주하였고, 다시 1593년에 카스트히(Castres)로 이주하여 설교자와 교수로 일하였다. 그는 거기서 1595년에 사망하였다. 알려진 그의 작품이 70권에 달할 만큼 그는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삶과 가르침에서 전형적인 칼빈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네우스는 모든 삶과 지식의 영역을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보았다. 그 결과 16세기 후반기에 개혁주의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 밖에도 그는 칼빈과 유사한 점이 많았는데, 그는 자신의 약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가르침을 베풀어야 했다. 그는 재능이 많고 명철하며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다.[11]

Ⅱ. 본론

1. 『기독교 입문서』에 나타난 다네우스의 신학 구조

이 논문에서 주로 살펴 볼 작품『기독교 입문서』는 총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섯 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12] 첫 부분은 *Christianae Isagoges Ad Christianorum Theologorum Locos Communes* (하나님에 대하여), *Pars Altera seu Secunda, in qua de Angelis tum Bonis, tum Malis, ac Demonibus agitur, caeteraque tractantur*

11) H. Heppe & E. Bizer, *Die Dogmatik der evangelisch-reformierten Kirche*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58), 29,31.

12) L. Danaeus, *Christianae Isagoges ad Christianorum Theologorum Locos Communes* (Geneve: Eustache Vignon, 1583); 이 주제의 주된 텍스트가 되는 이 책은 *Isagoges Christianae pars quarta: quae est de salutaribus Dei donis erga Ecclesiam. In qua & de Bonis Ecclesiasticis & de Electione Dei, Sacramentis, & Vita aterna agitur, reliquisque capitibus, quae sequens Index continet* (Geneve: Eustache Vignon, 1586) 이다. 이 책은 1562년부터 계획하여 1583년부터 1588년 사이에 출판된 책으로서 그의 신학 전체 분야를 조직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천사들에 대하여), *Pars Tertia, quae est de Homine, ubi quae de hominis pii et Christiani officio, tum, quam privatus, tum quam magistratus est* (인간에 대하여), *Pars Quarta, quae est de ecclesia, eiusque legitima administratione, ac potestate* (교회에 대하여), *Pars Quarta, quae est de salutaribus Dei donis erga Ecclesiam*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들에 대하여)이다. 이 주제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목	내 용
주제1	하나님에 대하여	속성과 삼위일체와 위격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하여
주제2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에 대하여	
주제3	인간에 대하여	인간의 본성적 이성에 대하여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사적, 공적 생활에 대하여
주제4	교회에 대하여	교회 자체에 대하여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 대하여 교회의 교리에 대하여(신약과 구약) 교회의 권세에 대하여
주제5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성도가 교회에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시는 은총에 대하여 (예정과 구원의 단계, 그리고 성례)

이러한 구성을 대략적으로 분류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교회에 관한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신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었던 칼빈과 유사하다. 그리고 다네우스는 예정론과 구원의 단계를 교회론 안에 위치시키고 있다.[13] 이것은 예정론을 교회론에 위치시키므로 교회의

13) 다네우스에게 있어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는 구원의 단계(gradus)이다.

지체들이 바로 택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던 칼빈의 기독교강요 초판의 전개와 유사하다.[14] 다네우스는 교회론에서 예정론을 다루고, 그 후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다네우스는 단순히 예정을 교회론에서 다룰 뿐 만아니라, 구원의 단계 전체를 교회론에서 다루는데 이 역시 칼빈의 초기 사상에서 볼 수 있는 구조이다.[15]

2. 섭리와 작정

다네우스는 칼빈과 같이 섭리와 예정을 분리하여 설명한다. 그는 섭리를 1권에서 다룬다. 그러나 작정과 예정은 주로 5권인 교회에게 베푸시는 은혜에서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다네우스는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먼저 다네우스는 섭리가 하나님의 예지 와는 다른 것임을 설명한다. 예지는 섭리와는 다른데, 하나님의 예지가 순전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는 피조물들에게 어떠한 필연성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16] 예지에 비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이다. 그러나 본성의 질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정하시는 것보다는 예지가 앞서간다.[17] 하나님께서 예지하지 않으신 것을 정하시지 않는다. 또한 정하지 않은 많은 것을 예지하신다. 그렇다면 예지하셨지만 정하지 않으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14) J. Calvin, *Joannis Calvini opera, vol.1,74.* Primum credimussanctam ecclesaim catholicam, hoc est, universum electorum nummerum, siveangeli sint, sive hominess (Eph. 1. Col.1) ; ex hominibus, sive mortui, sive adhuc vivant;... unam esse ecclesiam ac societatem et unum Dei populum cuius Christus, Dominus noster, dux sit et princes, ac tanquam unius corporis caput; prout in ipso divina bonitate electi sunt, ante mundi constitutionem, ut inregnum Dei omnes aggregarentur.

15) Calvin, *Joannis Calvini opera, vol.1,75.* Atque hic quidem ordo misericordiae Dei nobis a Paulo (Rom. 8) describitur ut quos ex hominibus elegit, eos vocet, quos vocabit iustificet, quos iustificavit glorificet... Itaque Dominus, dum suos vocat, iustificat, glorificat, nihil aliud quam aeternam suam electionem declarat, qua huc eos destinaverat, ante quam nascerentur.

16) Danaeus, *Isagoges Liber* Ⅰ, 46.

17) Danaeus, *Isagoges Liber* Ⅰ, 46.

가? 다네우스는 '죄'에 대한 것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죄인을 예지하지만 죄인을 만들지는 않으셨다.[18] 그렇다면 하나님께 죄는 순전한 예지에 속하는 것인가? 다네우스는 하나님의 예지와 정하심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19] 하나님 안에서 순전한, 그리고 피조물에 대하여 아무 효력을 끼치지 않는 지식이나 예지는 없다. 예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는 그 분의 영원한 작정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는 예지와 섭리가 동시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순전한 관찰자가 되실 수 없으며, 오히려 모든 일의 저자이시며 이끄는 분이시다.

더 나아가서 섭리는 예정과 구별된다. 섭리는 예정보다 더 넓다. 또한 예정은 하나님의 섭리의 개별적인 결과이다. 예정은 개개의 사람들과 연관되나, 섭리는 만물, 즉 하늘, 식물, 참새들과도 연관된다. 예정이라는 용어는 사람에게만 쓸 수 있다.[20] 여기서 섭리는 예정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이해된다. 동시에 이 섭리는 피조물에 대한 통치도 말하는 것이다.

섭리에 대해서 다네우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섭리는 하나님의 가장 자유롭고 능력있는 행위인데, 이것을 통하여 그 분은 우주 뿐만 아니라 개개의 피조물을 그들의 행위 속에서 충동하시고 통치하신다."[21] 이 섭리에서 중심되는 속성은 그 분의 의지이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시는 방식은 의지, 또는 뜻하심이다."[22] 다네우스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반복하여 설명한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충동하고 통치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개개의 피조물들에게 행할 힘과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개개의 피조물들을 그들의 결말로, 그리고 그

18) Danaeus, *Isagoges Liber* Ⅰ, 46.
19) Danaeus, *Isagoges Liber* Ⅰ, 46: "..., sed cum aeterno eius decreto, per quod omnia disponit, coniungi, & considerari debet Praescientia."
20) Danaeus, *Isagoges Liber* Ⅰ, 47.
21) Danaeus, *Isagoges Liber* Ⅰ, 52: "Providentia est liberrima & potentissima Dei actio, per quam non modo universa, sed etiam singula in singulis eorum actionibus ciet & regit."
22) Danaeus, *Isagoges Liber* Ⅰ, 52: "Modus autem ipse agendi in Deo est voluntas, sive velle."

분이 준비해 놓으신 수단들을 통하여 끌어가시기 때문인데, 또 그 분의 섭리를 통하여 정하시기 때문이다." [23]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는데 피조물들 – 사람들, 짐승들, 식물들 등 – 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계속하여 다네우스는 섭리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한다. 첫째, 하나님은 그 분의 섭리를 통하여 피조물들의 목적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들을 결정하시는데, 이 수단들을 통하여 그 목적에 이를 수 있다.[24] 둘째,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을 부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나 압박을 가하지는 않으신다.[25] 셋째, 하나님은 영원부터 모든 것을 확실히 정하시고 변화가 없다. 변하는 섭리는 존재하지 않는다.[26]

이 섭리에 대한 정의에서 다네우스와 토마스주의의 연관성을 볼 수 있다. 다네우스는 예정을 섭리 안에서 다루고 있으며, 섭리는 작정과 통치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다.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발견되는 개념인데, 칼빈과는 구별되지만, 다시 베자와 다네우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중세 신학의 토마스주의와의 연결성을 보여준다.[27]

그러나 다네우스는 예정론을 섭리론 아래에서 다루지는 않는다. 예정을 섭리론 아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론에서 예정을 다룬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칼빈의 이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네우스의 예정론의 내용은 무엇인가?

---

23) Danaeus, *Isagoges Liber* Ⅰ, 52: "…, quia non tantum vim & potestatem agendi rebus singulis Deus tribuit: sed etiam res singulas ad suos fines, & per media a se disposita dirigit, ac per suam Providentiam ordinat."
24) Danaeus, *Isagoges Liber* Ⅰ, 53: "Prima haec, Quod Deus per Providentiam suam non tantum fines ipsos rerum ordinat,… sed etiam media ipas omnia disponit, per quae ad eum finem est perveniendum."
25) Danaeus, *Isagoges Liber* Ⅰ, 54: "Secunda Providentiae Dei conditio & qualitas est, Quod rebus necessitatem inevitabilem illa quidem imponit, non tamen vim aut coactionem."
26) Danaeus, *Isagoges Liber* Ⅰ, 57.
27) F. A. James Ⅲ, *Peter Martyr Vermigli and Predestinati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124.

그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기독교 입문서』제 5권에서 다룬다. 그 내용은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다. 다네우스는 먼저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를 현세와 내세에서 주시는 것으로 구별한다. 그리고 현세에서 주어지는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구원의 은혜(*Salutares Gratiae*)와 그 은혜들에 대한 표와 성례(*Signa & Sacramenta earum gratiarum*)이다.[28] 그는 작정과 구원의 단계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로서 설명한다. 여기서 원인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된 원인과 부차적인 원인이다. 주된 원인은 '우리에 대해서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 하나님의 작정'(*Decretum Dei de nobis elegendis vel reprobandis*)이다. 즉 선택과 유기이다. 그리고 부차적인 원인은 '복음으로의 소명'(*vocatio ad Evangelium*)과 '복음에 대한 믿음'(*Fides Evangelii*)이다.[29] 이러한 원인에 대한 결과는 구원의 서정으로서, 칭의와 중생 곧 성화인데 이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3. 선택과 유기를 위한 작정의 성경적 근거와 방식, 유익에 대하여

다네우스는 작정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몇 가지를 먼저 언급하는데, 과연 작정이 성경의 교리인지, 또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그는 선택과 유기가 성경의 교리인지를 다루고 있다. 그는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두 구절씩을 증거로 말하는데, 구약은 삼상 16:1과 말 1:2이며, 신약은 롬 9장과 엡 1장이다. 이 외에도 다네우스에 의하면 많은 구절들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다. 딤후 2:20과 롬 9:23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선택 뿐만 아니라 유기도 증거하는 것이다. 이외에 출 33:19, 마 25:34,41이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한다.[30]

28)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10.
29)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11.
30) anaeus, *Isagoges: Quarta Ⅱ*, 115.

이것과 함께 그는 '유기'가 성경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곳곳에서 반박하는데, 이것은 다른 가르침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시안더가 유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 유명한 사람(오시안더)은 예정론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루는 가운데 유기라는 단어가 마치 성경과 교부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단어인 것처럼 두려워 한다. 즉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면, 다른 자들을 하나님이 유기하셨다는 것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31] 더 나아가서 성경이 비록 유기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유기를 의미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 유기자들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사도인 유다가 '옛적부터(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 된 자'라는 말과 바울이 그들을 왜 '진노의 그릇'이라고 불렀겠는가라고 반문한다.[32] 이런 이유로 인하여 다네우스는 비록 성경에서 유기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찾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유기하셨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외에도 마 25:41, 딤전 5:21은 천사들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증명한다.[33]

계속해서 다네우스는 작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한다. 그것은 '신중하게(*sobrie*), 경외감을 가지고(*reverenter*), 유익하게(*utiliter*), 경건하게(*pie*)'이다. 신중하다는 것은 성경이 정해 준 경계를 넘어가는 것과 그 논의 속에서 심연에까지 이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34] 더 나아가서 이 교리를 경외를 가지고 다루어야 하는데, 즉 인간의 근거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경의 권위로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31) Danaeus, *Opuscula omnia Theologica, ab ipso autore recognita, & in tres Classes divisa* (Geneve: Eustache Vignon, 1583), 1506: "In toto hoc de Praedestinatione tractatu vocem Reprobationis, tanquam vel ipsi Scripturae, vel Patribus ignotam homo iste horret: quasi si a Deo hominum quidam eligantur, & ut vult, praedestinentur, non sit omnino necesse, illos quoque a Deo reprobari."
32) Danaeus, *Opuscula*, 1506.
33)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16.
34)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26: "Ac sobrie quidem,quia positos a Scriptura terminus egredi non licet, neque altum in hac disputatione conscendere."

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기 위한 것이다.[35]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하고 유익하게 다루어야 한다.[36] 이러한 예정에 대한 자세는 기독교 강요와 유사하다. 칼빈 역시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에 대한 자세를 지적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유사하다.[37]

다네우스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작정에 대한 교리를 논하는 것이 무용할 뿐만 아니라, 잘못이고 위험한 일로 평가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잠 25:27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밀과 영광을 파헤쳐서는 안된다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다네우스는 일단 수긍한다. "그것은 옳다. 그러나 이런저런 어떤 논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해진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가 과도하게 그것을 찾는 것은 아니"[38]라고 말한다. 성경의 한계 안에서는 논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성경과 교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대한 공공연한 모독이 아니고서는 이 교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용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단언한다.[39] 그러므로 작정을 가르치는 것에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하고, 낮추기 위한 것이며, 둘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탄으로 이끌어 오고, 그 분에 대한 찬양하는 것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셋째로 우리를 마음의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 안에 전적으로 견고히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40]

---

35)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27: "Reverenter etiam tradi debet eadem haec doctrina, nimirum ne ex humanis rationibus, & non ex Scripturae sacrae autoritate de Electione, & Reprobatione Dei iudicemus acsentiamus."
36)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27: "Pie denique & utiliter est tradenda, ne vel malos in vitiis excusare videamur, vel bonos reddere ad stadium bene vivendi segniores."
37) Calvin, *Institutio III*, 21,1.
38)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23: "Hoc verum esse. Sed nunquam nimium eam scrutamur, dum fines verbo Dei nobis praescriptos non excedimus vel in hac, vel in alia quavis disputatione."
39)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23: "Quamobrem absque manifesta in Spiritum Dei blasphemia non potest negari haec doctrina esse Ecclesiae Dei utilis, & necessara."
40)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23–24.

그는 선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유기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변호한다. 그것은 곧 유기교리가 사람들을 무기력하고 게으르게 만들어서, 그들이 앞으로 선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해서 부정한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이, 마치 오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일이 앞으로도 없을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는 종종 복음으로의 소명이 늦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41] 그러므로 이 교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유기됐다고 생각 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께서 명하신 그러한 계명들) 가운데로 들어가고, 성경과 목사가 우리를 격려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들의 길을 안다면, 그렇게 시작한 자들은 유기된 사람들이 아니다. 즉 당신 자신이 택자들의 숫자에 속했는 지를 보고, 알기 원할 때마다 그야말로 선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택자들의 수에 들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42] 곧 믿음의 열매로서 그 선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바르게 살고 믿기 시작하기 전에, 그가 택자의 수에 있는지, 유기자의 수에 있는지 먼저 알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택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안에서 노력하는 자들을 하늘로 인도하실 것이다." [43]

이러한 선택에 대한 확신의 길은 행위로서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다. 열매가 있다면 그 원인을 확신해도 좋다. 이런 면에서 선택은 어느

41)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95: "Ut qui hodie non credit, de se desperare non debeat, quasi nunquam futurum sit, ut Evangelio credit, quia hodie non credit. Quorundam enim saepe tarde est vocatio ad Evangelium..."
42)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96.
43)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97: "Ne igitur in eo laboret quisquam, ut sciat primum & antequam recte vivere & credere incipiat, sitne de Electorum numero vel reprobatrum: sed quisque in eolaboret, & advitatur, ut in via ambulet, quam Deus omnibus suis electis demonstravit, quos in coelum traducturus est."

정도 확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신도 허락하지 않는다. 누구도 자신이 유기되었다고 생각할 근거는 없다. 이런 논리에 근거하여 그는 선택교리가 사람들을 게으르게 한다는 비난에 대해서 변호한다.

이러한 설명들은 예정론에 대한 다네우스의 목회적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예정론을 가지고 성도들을 나누지 않는다. 예정론은 사람을 절망에 넣으려는 교리가 아니다.

4. 선택에 대한 작정의 용어 정리와 작정의 내용의 구분

먼저 다네우스는 선택과 "정하심, 작정, 또는 선택하시는 의논"(*Propositum, Decretum seu Consilium eligendi*)을 구분한다. 그는 단어들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내용을 먼저 전제한다. "하나님께는 선과 후가 없으시며, 오히려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항상 있고, 또한 모든 것이 동시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이 교리를 쉽게 설명하려는 이유에서 어떤 자들을 선택하고 버리는 미리 정하심과 작정이 하나님 안에서 선행했으며, 선택이 그 다음에 왔다는 것을 가르친다"[44] 즉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동시적이나,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네우스는 이러한 구분 자체를 학자들의 사변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엡 1:4,5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시려는 미리 정하심, 의논, 작정이 선행하고, 후에 선택 자체, 또는 우리들에 대한 예정이 온다.[45]

그렇다면 미리 정하심, 즉 선택하시는 작정은 무엇인가? 그 작정 안에서

44)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33: "Quanquam autem apud Deum nihil reipsa est prius, nihil posterius, sed omnia apud eum semper sunt fuerunt vel simul ac praesentia: tamen nostri ratione & doctrinae huius facilius explicandae causa, docemus Propositum & decretum eligendi vel reprobandi aliquos prius fuisse in Deo: post autem fuisse electionem."

45)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33.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첫 번째는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 의지 자체(*de voluntate ipsa eligendi*)이고, 두 번째는 그 분의 의지를 수행하는 의논(*eius voluntatis exequendae consilium*)이다. 여기에도 논리적인 선후가 있는데, 그 분의 의지를 수행하는 의논보다, 어떤 자들을 선택하고, 다른 자들을 버리는 것으로 의지하고 작정하시는 것이 앞서는 것으로 이해한다.[46] 즉 선택하고 버리는 의지가 먼저이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들이 그 다음에 온다. 이것을 다네우스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므로 그 의지, 즉 그 분의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되도록,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개개의 사람들이 결정되고 정해진 그 의지가 하나님의 작정의 첫 번째 단계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의지에 조력하는 수단들을 정하시고 준비하신 것인데, (그 수단들은) 택자들 뿐만 아니라, 유기자들을 그 목적으로 이끄는 것이다."[47] 다네우스는 작정에서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의도를 먼저 놓는다. 그리고 그렇게 목적이 정해지고 나서, 그 대상을 정하신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수단을 놓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긍휼과 의를 보이시는 것은 단순히 긍휼과 의를 계시하시는 것으로 그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더 보이고자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하고 완전한 권세와 영광"(*plene perfecteque suam potentiam & gloriam*)이다. 그 분명하고 완전한 능력과 영광을 위해서는 "긍휼과 의" 둘 다가 있어야 한다. 둘 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함있고 불완전한 하나님의 권

46)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35: "Ex his duobus autemprius est, ut Deus voluerit decreveritque aliquos eligere, alios autem reprobare quam ut suae voluntatis exequendae consilium caperet."

47)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39: "Ergo voluntas ista, per quam singuli homines a Deo destinantur seu ordinantur, ut sint vel vasa misericordiae ipsius, vel vasa iustitiae, est primus decreti Dei gradus. Secundus autem gradus, est ordinatio seu praeparatio mediorum, quae huic voluntati subseruiunt, ad eum finem tum electos, tum etiam reprobates deducunt."

세와 영광"을 보이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다.[48] 그러므로 긍휼과 의 보다도 더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계시는 "분명하고 완전한 권세와 영광"이 된다. 이러한 다네우스의 사고는 전적으로 전택론적인데, 전택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긍휼과 의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영광을 더 강조한다.[49] 이러한 다네우스의 예정론의 특징은 그가 제네바 신학자들의 예정론의 영향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보이기로 작정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택자에게 자신의 긍휼을 보이시고, 유기자에게 자신의 의를 보이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목적과 함께 선택과 유기의 대상이 함께 고려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작정의 두 번째 단계가 오는데, 그것은 "실행의 미리 정하심"(*propositum exequendi*)이다. 이러한 실행의 작정 또한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그것을 통하여 그 분의 작정을 실행하게 될 수단들의 준비에 관련된 것"(*ad ipsam mediorum praeparationem, per quae primum suum illud decretum exequeretur*)이고, 두 번째는 "택자와 유기자 개개인에게 이루어질 그 수단들의 적용과 관련된 것"(*ad eorum mediorum applicationem, quae fitsingulis vel electis, vel reprobatis*)이다.[50] 즉 실행과 관련된 작정은 두 가지인데, 수단들을 정하심과 적용하심이다.

그리고 이 수단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는데, 첫째로 깨끗하고 순전한 인

48)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38: "Ergo plene perfecteque neque potentiam, neque gloriam suam ostenderet Deus, nisi & iustitiam suam in reprobis, & misericordiam in Electis patefaceret."

49) 후택론 역시 예정론에서 절대성을 말하나, 긍휼과 의에 더 강조가 있다. 다음의 언급은 이러한 강조가 후택론 구조 전체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F.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trans. George Musgrave Giger, volume 1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2), 343: "The object of the divine predestination ought to be either one eligible through mercy orreprobatable through justice. This cannot be said of man creatable and liableto fall, but only man as created and fallen."

50)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42.

간의 창조, 둘째로 창조된 인간의 넘어짐과 타락, 셋째로 첫 인간의 죄의 확대가 있다.[51] 이것은 택자와 유기자에게 보편적인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선택을 위한 수단이 하나 더 첨가되는데, 그것은 "아담 안에서 가장 의롭게 정죄된 최초의 사람들을 그 자신의 피로 구속하실 신인이신 그리스도"(*Christus Deus & homo, qui in Adamoprimos homines iustis sime damnatos suo sanguine redimeret*)이시다.[52]

여기서 다네우스는 말하기를 "그것을 통하여 그 분의 선택과 유기의 작정들을 수행하셨고, 수행하시는 그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었던 그 수단들이 그것을 일으키고 수행하도록 정하셨다"고 한다.[53] 여기서 다네우스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예지가 아닌, 하나님의 작정 안에 둔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이 작정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타락을 변명할 수가 없다. 다네우스는 타락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한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선한 조건으로 지으셨으나 가변적이었다. 즉 그가 원하면 범죄할 수 있었다. 그가 범죄한 후에는 변명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5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영원 전에 인간의 창조를 작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첫째 인간의 타락을 확실히 영원 전부터 정하시고, (타락이) 일어나도록 작정하셨다고 말한다.[55] 그러므로 두 관점에서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과 만난다. 물론 난점은 존재한다. 어떻게 하나

51) 후택론을 지지하는 튜레틴은 창조와 타락을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347: "The creation and fall are not ordered as means by themselves subordinate to the end ofpredestination, but are presupposed as the condition prerequisite in theobject."
52)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43-45.
53)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42: "Nam non solum praevidit Deus illa media, per quae exequutus est & exequitur decretum electionis suae ac reprobationis: verum etiam illa ordinavit, quae necessaria erant, ad illud efficiendum, & exequendum."
54)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44.
55)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44: "Caeterum Deus etiamipsum hominis primi lapsum ordinavit, & fieri decrevit, & quidem abaeterno, quemadmodum & ipsam hominis creationem decrevit ab aeterno."

님의 작정을 인정함과 동시에, 인간에게 죄책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네우스 역시 의식하고 있다. 그는 세 가지로 답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의지하신다는 그 분의 작정을 아담은 알지 못했다. 둘째, 아담은 자신의 고유한 의지와 악의로 범죄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심판을 받는 것이다.[56]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하나님 그 분의 드러난 의지와는 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작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분의 논의 근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경해서는 안된다고 한다.[57] 그는 '허용'이라는 용어보다는 "비밀스러운 작정"(*arcanum decretu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칼빈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58]

또한 다네우스는 구원의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하는데, 각각 유효적 원인, 질료적 원인, 형태적 원인, 목적적 원인으로 나눈다. 이것은 각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긍휼과 사랑,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또는 그리스도를 통한 양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선택의 이유를 논하는 데 있어서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을 가지고 설명한다. 여기서 그는 칼빈에게서 볼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그에게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을 언급한다. 오히려 칼빈에게서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의 구별은 하나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한 의지와

56)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49: "Tamen ipsum Dei decretum non fuit Adamo cognitum, nempe, Deum velle ut ipse peccaret. Itaque propria voluntate, ac militia peccavit Adamus, ac proinde iuste punitur a Deo."

57)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49: "Evenit igitur ex Dei ipsius arcano decreto id, quod tamen praeter & contra manifestam eiusdem Dei voluntatem erat. Cuius consilii ratio si non potest a nobis comprehehdi, ne propterea blasphemi simus."

58)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Geneve: Librairie Droz S.A.,1998), 250: "Hinc certe iam colligere promptum est, quam inane et fluxum sit illud divinae iustitiae patrocinium, quae mala sunt, non eius vluntate, sed permissu duntaxat fieri.... Sed quod otisum ea permittere fingunt, quae scriptura non tantum eo volente sed authore fieri pronuntiat, nimis frivolun est effugium;" 이와 함께 칼빈은 '허용'이라는 용어보다는 죄에 대하여' arcanae operationis', 'arcanum consilium'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인간의 의지, 특별히 죄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방식이었다.[59]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먼 원인은 알 수 없는 것이며, 오직 결과론적으로만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네우스는 선택에 있어서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을 언급하는데, 그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은 동일하게 각각의 네가지 원인, 즉 유효적, 물질적, 형태적, 목적적 원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 원인에 있어서 각각 하나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 할 것 없게 되기 위한 삶의 거룩함이다.[60]

이와 함께 가까운 원인에 있어서도 네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의 선하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순종,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의 긍휼의 찬양이다. 이러한 네 가지 원인에 대한 것은 칼빈이 요3:16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동일하게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네우스의 예정론 전개는 칼빈의 이해보다 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해와 전개로 치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예정에 대하여

다네우스에게 있어서 예정은 수단과 관련된 작정이다. 하나님은 모든 대상을 목적을 가지고 정하시고, 그 대상을 이끌 수단들을 정하셨다. 그리고 그 수단들을 어떻게 배열해야 할지를 정하신다. 그런데 이 수단들과 관련된 미리 정하심이 곧 예정(*praedestinatio*)이다. 성경에 의하면 예정은 곧 택자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택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59) Calvinus, *Praedestinatione*, 102: "Nam quum ob unius hominis peccatum inflictum omnibus fuerit lethale vulnus, rectum Dei iudicium omnes agnoscunt. Si nihil obstat, quominus et prima interitus origo ab Adam coeperit et proximam in se causem singuli inveniant, quid etiam impediet, quin Arcanum Dei consilium, quo praedordinatus fuerat hominis lapsus, qua decet sobrietate, procul adoret fides nostra et tamen, quod propius apparet, conspiciat: totum humanum genus in Adae persona aeternae mortis reatu constrictum esse et propterea morti esse obnoxium. Non ergo discussit Pighius, sicuti putabat, optimam et aptissimam symmetriam, qua inter se causa propinqua et remota congruent."

60) Danaeus, *Isagoges: Quarta II*, 152.

것들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들은 그 분의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 전에 이미 결정되고, 정해진 것들이다.[61]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정은 곧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분이 미리 정하신 바 실행하실 모든 수단들을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이며,[62] 곧 "작정의 실행"(*exequutio decreti Dei*)에 대해서 정하신 것이다.

그는 예정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일반적인 것과 택자들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예정은 하나님의 의논의 이행, 결과, 실행(*consilii Dei praestatio, effectum, & exequutio*)이며, 택자들 안에서 예정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영원한 구원, 유기자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시는 근거인데, 여기에서 단계와 질서들을 정하셨으며, 이것으로부터 택자들에게 소명, 믿음, 칭의등이 그분의 예정의 결과로서 나온다.[63] 이렇게 예정에는 택자들과 유기자들에 대한 여러 단계와 질서들이 있는데, 택자와 유기자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에 이르게 된다.

다네우스는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이 여러 가지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예정에 있어서 그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택하심이다. 즉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선택을 성취하는 도구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 긍휼을 베푸심의 첫 번째 단계는 양자 삼으심(*adoptio*)이다. 이 양자 삼으심은 모든 구원의 단계를 앞서는 것이다. 이것은 곧 택자를 하나님의

61)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11: "Haec praedestinati... ut demonstretur nimirum omnia, quae fiunt in electis, ut ad gloriam coeles temper veniant, esse a Deo iam pride definite, & ordinate ab aeterno, & ante Mundi ipsius creationem. Ephes.1:4."

62) Danaeus, *Compendium Sacrae Theologiae* (Montpellier: Ioannes Giletus, 1595), 111.

63)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66: "Est enim ratio, perquam Deus suos ad salutem aeternam perducit, reprobos autem ad exitum suum, per quosdam gradus, & ordines a se constitutos. Ex quo fit, ut vocatio, fides, iustificatio sint istius praedestinationis effecta, in Electis."

자녀의 수에 넣으시는 것이다. 다네우스에게 양자 삼으심은 이 땅에서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단계가 아니라, 영원 속에서 실행되는 선택의 내용이다. 성도에게 있는 구원의 서정은 이 양자 삼으심의 결과, 또는 효력(*effectum*)으로 이해된다.[64] 이 양자 삼으심의 결과 안에, 구원의 단계들이 들어가는데, 유효한 외적인 소명(*efficax vocatio externa*), 내적인 믿음(*fides interior*), 우리의 칭의(*nostra iustificatio*), 우리의 성화(*nostra sanctificatio*), 즉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영화(*glorificatio nostra*)이다.[65] 여기서 '양자 삼으심'은 이미 영원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으로 들어간다. 이 땅에 있는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양자 삼으심이 적용되는 것 뿐이다. 이로서 다네우스에게 있어서 성도의 양자됨은 영원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영원 속에 이루어진 양자됨에 대한 이해는 엡 1:4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엡 1:4은 선택과 양자됨을 한 구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하여 다네우스가 양자됨을 선택과 함께 창세 전에 이루어진 작정의 영역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정을 생각함에 있어서 다네우스는 몇 가지 조건을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예정이 하나님의 예지(*praescientia*), 그리고 섭리(*providentia*)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참으로 예지는 예정 없이 있을 수 있으나, 예정은 하나님의 예지없이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실 일, 즉 선한 일을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행하지 않으실 일, 즉 악과 범죄들까지 미리 아시기 때문이다.[66] 또한 택자뿐만 아니라, 유기자의 조건에 대한 예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섭리는 하나님이 만물에 대한 모든 미래를 미리 아실 뿐만

64)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78.
65)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78-79.
66)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68.

아니라, 그것들이 있기 전에 먼저 배치하시고 정하시는 권세이다.[67] 그러므로 예정은 하나님의 섭리의 한 종류이고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예지와 섭리와 예정을 뒤섞지 말고 구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한다.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 안에서의 예정은 확실하고 불변하며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68]

세 번째 조건은 택자들의 예정에만 고유한 것은 유기자들에게는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택함받은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한다. 그들에게는 표가 있게 되는데,[69] 이 표는 '우리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 '우리의 믿음', '우리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율법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들의 죄, 그리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육체의 탐욕들과 싸우고 슬퍼하는 것', '외적생활의 새롭게 됨' 등 다섯가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선택에 대한 것이고, 유기는 그러한 표가 없다. "즉 자신이 성령에 대하여 죄를 범한다는 것을 알고 느끼지 않는 한, 누구도 자신의 유기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말해서는 안된다."[70]

네 번째 조건은 선택의 길이 항상 하나로, 또는 계속되는 여정과 연속으로 항상 나타나거나 흘러가지는 않으며, 그 때문에 가끔 끊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71] 다네우스는 이러한 네 가지 조건과 함께 예정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네우스는 여기에서 선택의 확신에 대해서 설명한다. 택자는 자신이 맺는 열매를 통하여 스스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네우스의 설명은 선택의 확신에 대한 후기 개혁파 신학자들의 이해인 '실천적 삼단논

67)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69.
68)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69.
69)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73–74.
70)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72: "Nam de reprobatione sua nemo se dicat certum, nisi qui sese in Spiritum sanctum peccare scit, & sentit,..."
71)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75: "Quarta igitur, & ultima conditio praedestinationis.... Quod illa non simper uno, & perpetuo cursu & tenore apparet & fluit. Quamobrem interrumpi saepe videtur."

법'(*Syllogismus Practicus*)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네우스의 이해에서 칼빈의 '선택의 거울이신 그리스도'(*Speculum electionis*)는 나타나지 않는다.[72] 이러한 '선택의 거울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네우스에게 칼빈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electio in Christo)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예정의 근거로서는 '하나님의 뜻'만이 강조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예정의 실행의 영역으로 제한된다. 이런 면에서 다네우스의 예정론은 칼빈의 이해와는 일정부분 궤를 달리하며 베자와 유사하다.[73]

6. 유기에 대하여

선택과 함께 유기에 대해서 다네우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유기는 하나님의 가장 의로운의지인데, 이것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을 그 분의 진노와 의의 그릇이 되도록 정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정하신 것인데, 이것은 영원 전에 그 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74] 이러한 언급은 전택론적인데, 그에게 있어서 택함을 받은 대상들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즉 '죄로 타락한' 존재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그는 유기의 원인들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전택론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는 선택에서와 동일하게 유기에 대해서 첫째되고, 먼 원인과 가깝고, 근접한 원인을구별한다. 이 역시 동일하게 유효적 원인, 질료적 원인, 형

72) Calvin, *Institutio III*, 24,5.
73) 베자의 예정론에서 그리스도의 위치에 대해서는 진네마의 언급을 참조하라. D. Sinnema, "Calvin and Beza: The Role of the Decree-Excution Distinction in their Theologies," *Calvinus Evangelii Propugnator: Calvin, Champion of the Gospel* (Paper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Calvin Research, Seoul, 1998), (Grand Rapids: Calvin Studies Society Press, 1998).
74)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85: "Reprobatio estiustissima Dei voluntas, per quam aliquos hominess ordinat, ut sint vasa irae suae seu iustitiae : ac proinde ad iustitiae suae gloriam Deus etiam istos ad mortem aeternam destinat pro beneplacito suo, quod in eo fuit ab aeterno."

태적 원인, 목적적 원인으로 나뉘는데, 가까운 원인은 각각 하나님의 의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homines in Adamo*), 하나님이 행하신 인간에 대한 거절(*ipsa reiectio hominum a Deo facta*), 하나님의 영광이다.[75] 또한 먼 원인에 대해서도 그는 동일하게 네 가지 원인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첫째 되고,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원인은 영원부터 있었던 바, 하나님의 의지, 작정인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자들을 선택하시기 원하시고, 어떤 자들을 유기하는 것을 원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의와 완전한 최고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76] 그렇다면 유기의 어떤 다른 원인이 있는가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의지 외에 모든 것을 거절한다. 그는 롬9:16,17,22, 그리고 딤후2:20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의 악한 행위, 또한 우리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예지, 또 우리들의, 부모의, 그리고 고유한 무가치함이 사람의 유기에 대한 첫째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그 분의 유일한 의지인데, 그럼에도 그 의지는 의롭다"고 한다.[77] 더 나아가서 그는 바울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에서는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 뿐만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었는데, 그 원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78] 이것은 요9:3의 예에서 가장 분명하게 제시된다.

75)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85.
76)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86.
77)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87: "Ex quo (Rom9:16,17,22, 2Tim 2:20) sit, ut neque opera nostra mala, neque sola Dei praescientia de iis operibus nostris malis futuris, neque indignitas quoque nostra, sive paterna, sive propria sit prima causa reprobationis hominum : sed sola Dei ipsius voluntas, quae, uti diximus, tamen est iusta."
78)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87: "Nam ait Paulus, Esauum reprobatum a Deo fuisse, non solum antequam boni, aut mali quidquam fecisset: sed etiam antequam natus esset, ut ipsum originis peccatum excludat,..."

하나님이 왜 그렇게 유기하시는지 인간은 알 수 없다.[7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유기가 불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속성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절대로 벗어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덕성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의 덕성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의지는 가장 의로운 규범이고 규율'이다.[80] 이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이 모두 하나의 속성, 즉 단순하기 때문에, 그 분의 의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의로울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개는 칼빈의 이해와 동일한 것이다.[81]

계속하여 유기의 질료적 원인은 스스로와 그 자신의 종과 씨를 모두 타락시킨 첫 번째 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것이며, 형태적 원인은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돌아서심, 또는 구원의 은총을 빼앗으심이다. 목적적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의 그릇을 징벌하실 때, 드러나고 나타날 그 분의 의와 능력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다.[82]

이와 함께 다네우스는 유기의 실행 가운데서도 각각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소명이 없거나, 무효한 소명, 두 번째 단계는 불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제거, 네 번째 단계는 마음의 쉬지 못함 또는 혼란, 다섯 번째 단계는 오염, 여섯 번째 단계는 마음의 완고함, 일곱 번째 단계는 정죄이다. 이러한 순서는 칼빈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베

79)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87: "Rom. 9:11, Malac 1:2,3, Gen 25:23, Pro 16:4. Id quod etiam apud Ioannem videtur expressum, atque apertissime demonstratum. Ioan 9:3. Quamobrem hoc statuatur quod docet Scriptura S. primam reprobationis hominum causam esse decretum Dei, & voluntatem eius, quae iusta est, et si nobis incognita est, & incomprehensibilis."

80) Danaeus, *Isagoges: Quarta Ⅱ*, 201: "Dei enim praedestinatio, & reprobatio extra bonitatem, extraque iudtitiam nequaquam vel est, vel consideranda est: quandoquidem omnes virtutes in Deo sunt una virtus. Praeterea Dei voluntas est omnis iustitiae norma & regula."

81) 양신혜, "칼빈의 예정론 이해," 「한국개혁신학」 49(2016): 116: "... 칼빈은 하나님이 '최고의 원인'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정의의 가장 확실한 규칙'이라고 정의한다."

82)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88.

자보다도 더 세분화된 것이다.[83]

다네우스의 유기의 실행의 단계에 대한 설명에서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서정과 같은 이러한 '유기의 단계'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이다. 구원의 서정과는 달리 '유기의 단계'에 대해서는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성경에 이에 대응하는 구절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다네우스가 유기의 실행의 단계라고 본 것들을 유기를 이루어 가는 순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 또는 현상들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단계적이기보다는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이러한 유기의 단계는 앞에서 다네우스가 언급한 바 누구도 유기자로 확정해서는 안된다는 이해와 상충된 것으로 보인다. 유기의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유기자의 증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유기는 영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유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유기의 단계와 사람이 유기자를 구별해 낼 수 없다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7. 죄의 문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네우스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작정"(*Dei arcanum decretum*)으로 타락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혁파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한다. 그는 먼저 단언하기를 인간의 악한 행위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인간은 불의하게 원하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행하신다. 참으로

83) 베자는 *De praedestinationis doctrina et verousu tractatio absolutissima* (Geneve: Eustache Vignon, 1583)에서 몇 가지 순서를 제시하는데, 그 순서는 *Derelictio iusta in corruptio, Induratio, Indurationis effecta, Mors aeterna* 이다.

비록 악한 자들과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여 행한 것 안에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고 형언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의지가 없이는 하나님의 드러난 의지에 반하여 일어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84] 그는 드러난 의지와 비밀스러운 의지를 구분하여, 드러난 의지에 반하는 일조차도 비밀스러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의지'와 '비밀스러운 의지'를 조심스럽게 구분한다. 의지는 일반적으로 '드러난 의지'를 지칭한다. 이 의지는 분명히 선만을 명령하시고 계시다. 그러나 '비밀스러운 의지'에서는 '놀랍고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죄마저도 다스리신다.

여기서 다네우스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는 동시대, 또는 후대의 신학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허용'(*permissio*)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당시 개혁파 신학자들은 '허용'이라는 말을 정의하여, 그것이 무의지적인 허용이 아닌, 의지에서 나오는 허용이라는 것을 설명한 후에, 죄에 관련해서는 허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죄가 하나님의 작정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로 만들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타협선이었다. 그러나 다네우스는 '허용'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극히 자제한다.[85] 물론 그는 '허용'이라는 말의 사용 자체를 금하지는 않는다. 다네우스는 그의 다른 저서에서 어거스틴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한 악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되도록 허

84) Danaeus, *Isagoges: Quarta Ⅱ*, 204: "Deum iuste facereid, quod homo iniuste vult, & facit. Etsi vero in eo ipso, quod contra Dei voluntatem Mali hominess & peccatores egerunt, de ipsis facta est voluntas Dei: miro tamen & ineffabili modo praeter arcanam Dei voluntatem non fit, quod tamen fit contra ipsius patefactam voluntatem."

85) Danaeus, *Isagoges: Quarta Ⅱ*, 207: "Nam neque solum permittendo, neque patiendo, neque indulgendo tantum Deus indurat, sed iusteoperando & impellende." 죄의 원인과 관련된 38장 'De hac quaestione, Utrum Deus sit mali author, qui quosdam indurat'에서 한번 permissio가 사용되었는데, 이 역시 permissio를 긍정하기 보다는 부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락하심으로서 행하시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된다"고 한다.[86] 그는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그 분의 사역과 허용이라고 생각한다'[87] 고 함으로서 '허용'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의지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피력한다. 그러나 허용이라는 말을 사용한 다네우스의 저서는 롬바르두스에 대한 주석서라는 것을 볼 때, 자신의 의도보다는 '허용'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신학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다네우스 자신은 '허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간혹 허용을 대신 할 만한 '허락하다'(*sinere*)라는 말을 사용하면서,[88]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허용'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피하고 있다. 그는 타락과 관련해서도 매우 강력한 어조를 사용하는데, '정하셨다'(*ordinavit*), '발생하도록 작정하셨다'(*fieri decrevit*), 하나님은 그가 범죄하는 것을 원하셨다'(*Deum velleut ipse peccaret*)고 말한다.[89]

다네우스와 같이 칼빈 역시 기독교강요에서 허용이라는 단어의 오용을 지적하였다.[90] 칼빈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만이 만물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칼빈의 이해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한 것은 다네우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다네우스는 당대의 신학자들 중에서 누구보다

86) Danaeus, *In Petri Lombardi Episcopi Par sensibus librum primum Sententiarum, qui est de vero Deo, essentia quidem uno: personis autem trino: Lamberdi Danaei commentarius triplex. Liber 1.* (Geneve, 1580), 708: "Nec dubitandum est Deum facere bene, etiam sinendo fieri quaecunque fiunt male". 이하 Commentarius.

87) Danaeus, *Commentarius,* 708: "Ecce hic manifeste habemus Dei voluntatem appellari ipsius operationem vel permissionem."

88) Danaeus, *Isagoges: Quarta Ⅱ*, 204.

89) Danaeus, *Isagoges: Quarta Ⅱ*, 204–8.

90) Calvin, *Institutio, Ⅲ*, 23,8: "Hic ad distinctionem voluntatis et permissionis recurritur, secundum quam obtinere volunt, permittente modo non autem volente Deo perire impios. Sed cur permittere dicemus, nisi quia ita vult? Quanquam nec ipsum quidem per se probabile est, sola Deipermissione, nulla ordinatione, hominem sibi accersisse interitum. Quasi veronon constituerit Deus qua conditione praecipuam ex creatures suis esse vellet. Non dubitabo igitur cum Augustino simpliciter fateri, voluntatem Dei esse rerum necessitatem, atque id necessario futurum esse quod ille voluerit; quemadmodum ea vere future sunt quae praeviderit."

도 가장 적극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91]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시라는 것을 부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는 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92] 그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의 저자가 아니시며, 죄들의 저자와 원인은 오직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93] 다네우스는 많은 성경 본문을 통하여 유기된 자들의 범죄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으며, 오직 사람이 죄의 원인자라고 말한다. 그는 이것을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다.

첫째로 비록 하나님께서 유기자들이 믿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불의한 자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믿지 않으며 완고해지기 때문이다.[95] 다시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 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락은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필연성이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죄 짓게 하거나,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며, 강제로 그들이 죄를 짓게 하지 않았다.[96] 즉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죄를 지었으나, 그럼에도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악한 의지에 따라서

91) 이렇게 죄와 작정을 강하게 연관시켜 표현을 쓴 대표적인 신학자는 네델란드의 신학자인 요한네스 마코비우스(Johannes Maccovius, 1588-1644)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죄의 원인자로 만든다는 오해를 받았다. A. Beck, *Gisbertus Voetius (1589-1676): Sein Theologieverständnis und seine Gotteslehr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335.

92) Danaeus, *Isagoges: Quarta Ⅱ*, 205: "Nam mala Deivoluntats esse non potest."

93) Danaeus, *Compendium*, 192: "Mala tamen velut peccata, quatenus mala sunt, semper excipimus, quatenus, inquam, mala seu peccata sunt, quorum Deus nunquam est autor. Nam eorum, id est peccatorum(quatenus peccatum, non autem quatenus illud est actio) autor & causa est sola hominis agentis voluntas, August. In Enchirid. Cap.100."

94)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93; 다네우스가 인용한 성경 본문은 다음과 같다: 시 58:4, 출 3:19, 4:21, 창 25:22, 말 1:2, 롬 9-11장, 행 13:48, 사 54:16, 요 9:3, 12:38, 사 53:1, 63:17.

95)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93: "Nam etsi Deus ordinavit reprobos non esse credituros, & hunc vel illum obdurandum esse: sponte tamen non coacte, & voluntate propria haud invite isti non credunt, aut crediderunt, sed se obdurant, atque hiusmodi sunt."

96)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93.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그 책임은 자신의 의지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악한 사역과 행위 가운데 내재해 있는 범죄, 또는 악 사이에 인간의 악한 의지라는 수단이 오는데, 오직 그 의지로부터 범죄가 시작한다고 한다.[97] 즉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범죄 사이에는 인간의 악한 의지가 있으며, 그 범죄는 전적으로 인간의 악한 의지에서 기인한다고 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범죄가 함께 존재하지만, 그들 중에서 범죄는 오직 인간의 죄악된 의지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두 가지 근거를 두고 다네우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author*)라던가, 본성을 타락시키는 자(*corruptor*)라는 것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다네우스는 당시에 죄의 원인과 관련해서 만연한 세 가지 오류에 대해서 경고한다. 첫째는 자신의 죄의 책임을 별(별자리)에 두는 사람들이다. 둘째는 마니교도들인데, 그들은 그들보다 강력한 어떤 어둠의 종족에게 책임을 돌린다. 셋째는 자유주의자들(*Libertini*)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사탄에게 돌린다.[98] 이들은 모두 자신에게 있는 죄의 책임을 또 다른 어떤 존재에게 돌리는 자들이다.

그러나 죄의 근원은 하나님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에 있다. 다네우스는 죄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음을 확고히 한다.

8. 구원의 단계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네우스는 예정론 안에서 구원의 단계를 설명한다. 그리고 그 설명에서 모든 구원의 단계 이전에 '양자 삼으심'(*adoptio*)

97) Danaeus, *Isagoges: Quarta* Ⅱ, 207: "Inter Dei denique voluntatem & peccatum sive malum, quod in ipso malorum hominum opera & facto inest, media intercedit mala hominum voluntas, a qua sola proprie peccatum est & proficiscitur."

98) Danaeus, *Isagoges: Quarta* Ⅱ, 207–8.

을 먼저 둔다. 즉 양자 삼으심은 소명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단계에 대한 또 다른 원인과도 같다. 이런 면에서 '양자 삼으심'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은총의 한 단계라기보다는 소명 이하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조건이고 시작점이다. 즉 택자를 먼저 양자 삼으시고, 그 양자에 합당한 은총들을 내리시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양자 삼으심은 다네우스에게 있어서 독특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99]

이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은혜의 시작은 소명이며, 이것은 믿음과 함께 사람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부차적인 원인으로 이해된다.[100] 여기서 소명은 일반적인 특별한 직무나 직분을 위한 소명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로, 또는 복음과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을 뜻한다.[101] 이 소명은 부르는 방식(*modo vocandi*)과 효과(*effectis*)에 따라서 각각 두 가지로 나뉜다. 효과에 따라서는 '유효한 소명'(vocatio efficax)과 '무효한 소명'(*vocatio inefficax*)으로 나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부차적인 원인이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fides Theologica*)이 온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우리를 밝히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의 동의이다.[102]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설명한다. 즉 이것(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는 것과 읽는 것을 이해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리가 있으며, 참되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 교리에 대한 선한 마음과 그 교리를 맛본 것으로 인하여 그 교리 자체를 받

99) Danaeus, *Isagoges: Quarta Ⅱ*, 178-79 참조. 다네우스는 구원을 이루는 수단에 대한 예정에서 소명 이하의 구원의 단계들을 다루면서 그것의 원인을 크게는 예정으로두고, 그 예정 안에 있는 양자삼으심을 또 다른 원인으로 두고 있다. 이런 면에서 양자는 소명 이하의 구원의 단계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이해한다.

100) Danaeus, *Compendium*, 115: "Illae vero caussae sucundariae, per quas decretum Dei de electione hominum executioni quod; in nobis a Deo ipso mandatur, sunt inprimis duae, ut docet Paulus, Rom.9:30, Eph.2:8, Ioan.6:29. nempe vocation nostra efficax ad Evangelium seu Christum, & ex ea fides in eundem."

101) Danaeus, *Compendium*, 116.

102) Danaeus, *Compendium*, 118: "Est igitur in universum fides Theologica, animi nostri assensus a Dei spiritu nos illuminante & movente genitus."

아들이며, 그것을 증거하고 따르고 고백한다.[103]

여기서 다네우스는 역사적 믿음(*historica fides*), 일시적 믿음(*temporaria fides*)과 물질적 근거에 의한 믿음(*ratione materiae*)과 참된 믿음(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구별한다.[104] 이 믿음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며 여기에 의롭게 하는 믿음(*fides justificans*)이 따라온다.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긍휼에 대해서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마음에 새기신 확실한 인식인데, 이것을 통하여 개개의 성도들은 영혼과 그의 마음의 충만한 신뢰로서, 그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버지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받아들인다.[105] 즉 믿음은 확실한 인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긍휼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네우스는 마치 믿음에도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것처럼 설명한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의롭다하는 믿음인데, 성경의 교리를 지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에서, 신뢰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신뢰하는 것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의롭게 하는 믿음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즉 구원의 단계를 베푸시는 도구가 된다.

다네우스는 믿음을 통하여 받는 여러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

103) Danaeus, *Compendium*, 118: "Per quem(fidem) ea, quae de Dei verbo scripto audimus & legimus, non solum intelligimus & credimus, id est, fatemur esse & vera, & doctrinam Dei, sed etiam benevolentia quadam & gustu erga eam ipsam doctrinam afficimur, eam probamus, sequimur ac profitemur."

104) 이러한 네 가지 믿음에 대한 구별은 다른 개혁파 신학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독일의 개혁파 신학자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 1534–1583)는 그의 작품『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에서 믿음을 '역사적 믿음', '일시적 믿음', '이적을 행하는 믿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네 가지로 구별한다.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 원광현 역(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6), 203–7.

105) Danaeus, *Compendium*, 119: "Est autem fides iustificans certissima cognitio de Dei promissionibus & misericordia a S. Spiritu revelata & cordibus impressa, per quam singuli fideles plena animi & cordis sui fiducia Deum sibi partem & servatorem per Christum filium eius Dominum nostrum esse sciunt, credunt & amplectuntur."

먼저 오는 것은 가까운 원인으로서 의롭다하는 믿음이다. 이 의롭다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장 밀접하게 연합되게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연합하게 되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신비한 몸(*unum corpus mysticum cum Christo*)이 되는 것이다.[106] 그리고 머리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성도를 위한 구원의 은혜들을 나눠받게 된다. 그것은 '생명', '의롭다함', '거룩', '죽음', '부활' 그리고 '영광'이다.[107] 그러므로 두 번째 결과는 생명이다. 그리고 세 번째 결과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의로움이다.[108] 다네우스는 이 의로움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하나는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들의 죄악들에 대한 값없는, 그리고 온전한 죄사함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행해진 바 그 분의 온전한 의를 값없이 전가하시는 것이다.[109] 네 번째 결과는 "우리의,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내재하는 거룩함과 중생이다. 이것들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하고 주요한 은총인데,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분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택자들 안에 있는 것"이다.[110]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이생 후의 우리들의 영광'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다네우스는 칼빈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두 가지 은혜로서의 칭의와 중생, 또는 성화를 말한다.[111]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은 두 가지 결점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과 우리 안에 가지는

106) Danaeus, *Compendium*, 121.
107) L. Danaeus, *Compendium*, 122: "Nam omnia sua Christ homo velut caput nobis suis membris communicat, vitam, iustitiam, sanctitatem, mortem, resurrectionem & gloriam suam, Rom. 5:5,6, Col. 3:1."
108) Danaeus, *Compendium*, 122.
109) Danaeus, *Compendium*, 124.
110) Danaeus, *Compendium*, 122: "Nostra & in nobis ipsis inhaerens sanctificatio seu regeneration, quae sunt potissima & praecipua Christi Mediatoris in suos, seu Dei electos in his terris adhuc versants beneficia."
111) 최윤배, 『깔뱅신학입문』(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268-69; 김은수, 『칼빈과 개혁신앙』(서울: SFC, 2011), 170: "칼빈에 의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서 '이중은혜'(duplex gratia), 곧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타락이다. 이와 같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분을 통하여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우리 안에서 중생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부터 성도의 의로움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부터 성도의 중생, 혹은 거룩이 나온다.[112]

이와 함께 다네우스는 의롭다하는 믿음의 또 다른 결과로서 '우리들의 중생, 그리고 내재하는 성화'(*regeneratio nostra, seu sanctificatio inhaerens*)를 말한다. 그리고 이 성화 안에서 선행과 그것을 통하여 선행을 준비하게 되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먼저 이 중생은 의롭다하는 믿음의 결과이며, 이것은 택자 개개인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믿음을 통하여 누리는 생명인데 "이 영적인 생명은 육체의 본성적인 허물과 그것의 모든 결과물들을 죽이고 소멸시키며, … 새롭게 된 자들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살리고 낳고 충동하고 커지게하고 보존하므로서, 그들의 모든, 그리고 개개의 내적, 외적 사역은 그 분의 명령들과 드러난 의지로부터 하나님의 순종으로 분명하게 확증되고 결정된다."[113] 그리고 성화, 거룩함, 그리고우리의 의는 행위에 의해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며, 전가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114] 이런 면에서 칭의와 성화, 중생은 구분되어야 한다. 다네우스에게 있어서 논리적으로 중생은 칭의보다 후에 온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중생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우리의 육의 죽음과 영의 살리심이다(*nempe carnis nostrae mortificatione & spiritus vivificatione*).[115]

---

112) Danaeus, *Isagoges: Quarta II*, 315: "Nimirum Iustificatio nostra coram Deo, Regeneratio nostra in nobis ipsis. Ex obedientia Christi nostra coram Deo iustificatio nascitur, & in ea fundatur. Ex santitate vero Christi nostra quoque sanctitas seu regenerato oritur. Utraque igitur ex Christo fluit in nos, & in Christo est fundata,…"

113) Danaeus, *Compendium*, 126: "(Regeneratio) quae carnis nativam vitiositatem, & illius effecta omnia mortificat & extinguit; & spiritum seu motus, affectusque; novos & sanctos in iisdem vivificate, gignit, ciet, auget ac conservat, ut omnia & singula eorum opera tum interna, tum externa ad dei obsequium ex ipsius praeceptis seu voluntate patefacta plane conformentur ac componantur."

114) Danaeus, *Compendium*, 126.

115) Danaeus, *Compendium*, 126.

육의 죽음은 우리의 본성의 모든 허물과 잘못된 욕망, 그리고 그 결과들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육의 행위들과 욕망들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다. 이것은 육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든 허물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 역시 두 가지인데,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원, 즉 육의 잘못된 질(*qualitatem ipsius carnis pravam*)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 째로는 그 질과 허물의 모든 행위들(*illius qualitatis, & vitiositatis opera omnia*)을 제거하는 것이다.[116]

영은 곧 어떤 새로운 영적인 본질(*nova quaedam essentia spritiualis*)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거룩하게 된 새로운 질이다(*nova duntaxat qualitas sancta & Dei voluntate consentiens*).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바 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창조되고 주어진 것이며, 이것은 거룩하고 새로운 능력이고, 우리들의 영혼의 질이다.[117]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능력들, 즉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지성에 대해서 개혁과 쇄신을 하는 자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안에서, 의와 거룩을 향한 의지의 중생, 그리고 모든 절제를 향한 욕구적 능력의 중생을 한다"[118] 고 말하며, 아울러 이러한 살리심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생의 결과로서 회개가 온다. 회개는 영혼의 성향인데, 이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자신의 죄악들과 옛 악행들을 혐오하는 것(*vitia sua & prius admissa detestans*)이고, 둘째는 생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vitae rationem verbo Dei consentientem*)이다.[119] 그러므로 참된 회개 안에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

116) Danaeus, *Compendium*, 126.
117) Danaeus, *Compendium*, 127.
118) Danaeus, *Compendium*, 127: "Qui omnium animi nostri facultatum, nempe nostrae mentis seu intelligentiae reformationem & renovationem continent in agitione veram veri Dei, & voluntatis adiustitiam & sanctimoniam, & appetitivae facultatis ad omnem temperantiam, regenerationem habet."
119) Danaeus, *Compendium*, 127.

여 진지하게 돌아서는 것과 잘못된 삶의 변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영혼의 회개로부터 그리스도인의 다른 능력들이 흘러나오며, 모든 참된 능력들이 선한 행위들을 낸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다네우스는 소명으로부터 선행까지를 정리한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지금 한국 교회에 정착된 구원의 서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별히 다네우스에게 있어서특징은 '양자삼으심'을 이땅에서 받는 성도들의 구원의 서정의 한단계로 이해했다기보다는 일종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며, 모든 단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 중생은 변화의 시작점이라기보다는, 성화와 같이 세상에서 이루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런 면에서 중생은 훨씬 포괄적인 형태를 띄게 된다.

Ⅲ. 결론: 특징과 평가

다네우스의 예정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난다.

첫 번째, 다네우스의 예정론에서는 제네바 신학의 특징인 이중 예정론과 전택론적인 사고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칼빈과 베자에게서 나타났던 내용으로서, 그들의 제자인 다네우스에게서도 반복된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과 베자의 이해를 선택적으로 따르고 있다. 교회론에서 예정을 다룬 것이라던가, 혹은 '허용'에 대한 용어보다는 죄에 대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 것 등은 칼빈의 이해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원의 단계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칭의와 중생(성화)의 이중적 은혜를 꺼내는 것 역시 칼빈의 이해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에 대한 이해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예정의 실행에 해당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네우스의 예정론은 내용적으로는 칼빈보다는 베자의 이해 쪽에 더 가깝다. 그러나 예정론을 교회론에서 다루었다는 형식적인 측면에

서는 칼빈을 따르고 있다.

세 번째, 아리스토텔레스-토마스 중세 신학의 영향이 칼빈과 베자보다 다네우스의 예정론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서 다네우스의 예정론은 칼빈과 베자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세밀함을 띄게 된다. 그는 어떤 교리를 설명할 때, 철저하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4가지 원인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성경의 내용을 벗어나게 되는 잘못으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유기론을 더 세밀화시키고 논리화시키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세분화된 유기의 단계 등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종합적으로 다네우스는 칼빈적 스콜라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예정론은 칼빈과 베자에게서 영향을 받았지만 그 서술 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칼빈과 베자의 제자로서 절충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그는 칼빈과 베자 보다는 철학적이고 논리적이었다.[120] 다네우스는 베자보다도 더 중세 신학을 특징을 드러낸다.[121] 그러나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해와 전개 방법은 당시 보편적인 연구방법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이점을 제외한다면 예정론 논쟁으로 인하여 논쟁적인 성격을 띄었던 베자의 작품보다는 더 위로적이고 목회적인 측면도 있다. 교회론적인 예정론[122]과 구

120) R. A. Muller, *After Calvin: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a Theological Tradition*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54: "Daneau also drew on the thinkers identified by Calvin and other Reformers as saniores scholastici, sounder or more trustworthy scholastics, such as Lombard, Aquinas, Bonaventure, and Durandus, to build his own system of theology."

121) J. Mallinson, *Faith, Reason, and Revelation in Theodore Beza 1519-160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77.

122) 다네우스의 교회론적 예정론은 알렉산더 슈바이쳐(Alexander Schweizer)로부터 논의되었던 '중심교리이론'(Zentraldogma)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 A. Muller,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v.1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7), 87: "Further more,Schweizer's discussion is organized not according to the logic of the-sixteenth - and seventeenth-century systems but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his own Schleiermacherinan theological system. In Schweizer's hands, even thetopics of the prolegomena must bear witness to 'das Bewusstsein schlechthinigerAbhängigkeit' - the consciousness of absolute or utter dependence."

원론, 그리고 죄마저 포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강조 등은 지금의 교회에게도 유익한 이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유기론 등에서는 베자보다 더 멀리 나간 면이 있다. 그는 칼빈과 베자의 영향 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연구는 제네바 개혁파 신학자들과 후기 17세기 학자들의 다리 역할을 하는 전형적인 칼빈주의 신학자의 표본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n Lambert Danaeus (1530–95)

Si Hun Kim (Daeshin Theological Seminary, Historical Theology)

The first purpose of this paper is the study on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of a Reformed theologian Lambert Danaeus who has received only minimal attention in Korea. A second goal is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theological continuity between Danaeus and his teachers Calvin and Beza.

I would like to show some noteworthy features in his doctrine of predestination.

First, Danaeus treated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and soteriology in ecclesiology. He understood that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gave an instructive benefit to the Church. His doctrine of predestination was under Calvin's influence.

Secondly, Danaus' doctrine of predestination showed the double-Predestination and Supralapsarianism like Calvin's and Beza's.

Thirdly, Danaeus' predestination followed Calvin's and Beza's by an eclectic approach. The 'unity with Christ' was located in central of Danaeus' soteriology. The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came from the unity with Christ. This understanding of Danaeus was similar to Calvin's doctrine. But Calvinist 'electio in Christo' was not seen in Danaeus', and the role of Christ was limited in the execution of predestination as Beza's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Fourthly, it seems to me that 'aristotle-thomistic understanding' appeared stronger than Calvin's and Beza's in Danaeus' predestination. His understanding of predestination was more logical and detailed than the understanding of Calvin and Beza. For this reason, speculative characters showed in Danaeus' predestination. So I could not accept his "reprobation's order". He showed a typical Calvinistic scholar.

Fifthly, the pastoral perspective of Danaeus was in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His work had more the pastoral perspective than Beza's work which was written

during he had to debate on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The emphasis on the ecclesiological doctrine of predestination, of salvation and God's providence for sin still give comfort to the Church of today.

Lambert Danaeus was a typical Reformed and the Calvinist scholasticism which acted as a bridge between the Reformers in Geneva and the Calvinists in 17th Century in Europe.

Key Words: Lambertus Danaeus, John Calvin, Theodore Beza, Predestionation, reformed scholasticism, Supra lapsarism, reformed theologian in 16th Century

[참고문헌]

Beck, A. Gisbertus Voetius (1589-1676): *Sein Theologieverständnis und seine Gotteslehr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Calvin, J. *J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iderunt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ntz Eduardus Reuss Theologi Argentoratenses, vol. I. Cum Calvini Effigie. Brunsviae: Apud C.A. Schwetschke et Filium. NY & London: Johnson Reprint Corporation/ Frankfurt am Main: Menerva G.m.b.H., 1863-1864.*

_____.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Geneve Librairie Droz S.A.,1998.

Danaeus, L. *In Petri Lombardi Episcopi Par sensibus librum primum Sententiarum, qui est devero Deo, essentia quidem uno: personis autem trino: Lamberdi Danaei commentarius triplex*. Liber 1. Geneve, 1580.

_____. *Christianae Isagoges ad Christianorum Theologorum Locos Communes*. Geneve: Eustache Vignon, 1583.

_____. *Opuscula omnia Theologica, ab ipso autore recognita, & in tres Classes divisa*. Geneve: Eustache Vignon, 1583.

_____. *Compendium Sacrae Theologiae*, Montpellier: Ioannes Giletus, 1595.

Fatio, O. "Lambert Daneau 1530-1595," trans. Jill Rait, *The Literature of Witchcraft*, ed. B.P.Levack. New York, & London: Garland Pub., 1992.

Heppe, H. & Bizer.E. *Die Dogmatik der evangelisch-reformierten*

Kirche.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58.

James Ⅲ, F. A. *Peter Martyr Vermigli and Predestin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Maag, K. "Calvin und die Studenten," *Calvin Handbuch,* ed. H.J. Selderhuis. Tübingen: Mohr Siebeck, 2008.

Mallinson, J. *Faith, Reason, and Revelation in Theodore Beza 1519–160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Muller, R. A.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v.1.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7.

_____. *After Calvin: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a Theological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Sinnema, D. "Calvin and Beza: The Role of the Decree-Ex cution Distinction in their Theologies," *Calvinus Evangelii Propugnator: Calvin, Champion of the Gospel (Paper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Calvin Research. Seoul, 1998).* Grand Rapids: Calvin Studies Society, 1998.

Sytsma, D. S. "Calvin, Daneau, and Physica Mosaica: Neglected Contnuities at the Origins of an Early Modern Tradition," Church History and Religious Culture 95, no.4.2015.

Turretin, F.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v.1, trans George Musgrave Giger.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2.

김은수. 『칼빈과 개혁신앙』. 서울: SFC, 2011.

김진하. "다네우스의 생애와 신학, 그리고 칼빈신학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중심으로". 『칼빈 이후의 개혁신학자들』. 부산: 고신대개혁주의학술원, 2013.

양신혜. "칼빈의 예정론 이해". 「한국개혁신학」 49(2016): 116.

최윤배. 『깔뱅신학입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3.